

|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경제안보 클러스터 |

| 정성분석팀 12개국 보고서 |

브라질의 경제안보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Institute for Future Strategy, Seoul National University



브라질의 경제안보

1. 들어가며 : 룰라 3기 정부의 출범

2023년 1월 1일 Luiz Inácio Lula da Silva(루이스 이나씨우 룰라 다씨우바)가 브라질의 제39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룰라는 2003-2006년, 2007-2010년에 이어 2023-2026년에 브라질을 이끌게 되었다. 제3기 룰라 정부는 제1, 2기와 달리 국내외적 여건이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출범하였다.

2022년 10월 말 결선 투표에서 룰라는 50.9%(60,325,504표)를 획득하여 현직 대통령이었던 보우소나루를 1.8%(2,128,626표)의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승리하였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 등 여러 실정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작은 표 차이에 브라질의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었는데, 지난 1월 8일에 보우소나루를 지지하는 폭도들이 대통령 집무실, 의회, 대법원에 난입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브라질의 분열은 룰라 정부가 해결해야 할 큰 도전이다. 그러나 분열을 낳는 토양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 도전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 이 토양으로는 부의 편중, 지역 간 발전의 격차, 포퓰리즘적 정치를 우선 꼽을 수 있다. 그리고 '브라질 비용'으로 일컬어지는 비효율적인 제도, 부담스러운 세금, 까다로운 노동 법규, 부정부패의 성행 등도 일조하고 있다. 또한 재정 건전화와 생산성 향상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브라질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나라로 남미대륙의 절반에 이르는 '대륙 속의 대륙'이며 인구는 2억1천4백만 명에 이르고 있다. 브라질의 경제력은 남미에서는 압도적이다. 그러나 세계 경제에 있어 브라질이 차지하는 위상은 10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1인당 국민소득은 1만 불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브라질의 잠재력을 고려하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 성적표이다.



브라질 경제는 도약을 시도하다 날지 못하고 주저앉는 과정을 반복하는 ‘닭의 비행(Chicken Flight)’이라고 자주 묘사되고 있는데 이는 브라질로서는 뼈아픈 지적이다. 브라질은 자신의 강점을 최대화하고, 약점을 보완하고, 외부로부터의 기회와 위협에 잘 대처하여야 한다. 한국은 브라질과의 협력 추구에 있어 브라질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2. 강점

2.1. 중남미 제1의 국가

브라질은 국토 면적이 약 851만km²(이 중 29%는 농지, 66%는 산림지)로 남미대륙의 거의 절반(47.3%)을 차지하고, 러시아, 캐나다,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국가이다. 브라질은 남미대륙의 중앙에 위치하며, 남미의 9개국과 프랑스령 기아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남미에서 국경을 접하지 않은 국가는 에콰도르와 칠레뿐이다.

브라질은 2억1천4백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데, 남미에서는 2, 3위인 콜롬비아, 아르헨티나의 5천만 명 수준에 비해 압도적인 규모이며, 중남미를 통틀어도 2위인 멕시코의 1억3천만 명에 훨씬 앞서 있다. 브라질 인구의 평균 연령은 30.7세로 비교적 젊다. 인구는 백인 45%, 혼혈 45%, 흑인 9%, 동양인 0.5%, 인디오 0.4%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종 간에 갈등은 거의 없다.

브라질의 2021년 국내총생산(GDP)은 1조6,100억 불로 남미에서 아르헨티나는 30%, 칠레, 콜롬비아는 각각 20%, 페루는 14% 수준에 불과하며, 중남미를 통틀어 멕시코가 80% 수준이다. 1인당 국민소득은 중남미의 평균인 8,340불에는 미치지 못하는 7,518불을 기록하고 있다. 2021년에 경제는 4.6% 성장을 기록하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2020년의 -3.9% 역성장에서 회복하고 있다.



2.2. 대국에서 나오는 경쟁력

(외부 의존도가 낮은 경제)

브라질 경제는 기본적으로 내부 지향적이며, 자급 자족적이다. 2억 명 이상의 인구에서 나오는 거대한 내수시장과 광활한 영토에서 생산되는 식량과 에너지, 광물자원은 외부의 필요성을 대폭 낮추었다. 이 점은 GDP에서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2019년 기간 20-30% 수준에 불과한 점에서도 알 수 있다. 2020년과 2021년은 각각 32.9%, 39.2%를 기록하여 이전과는 다른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브라질 경제는 외부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점은 역으로 브라질 경제가 일정 한도에 도달하면 더 이상의 도약을 어렵게 하는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보우소나루 전 정부는 유럽연합, EFTA, 캐나다, 한국, 싱가포르 등과 FTA 체결을 추진하여 글로벌 가치 사슬(GVC)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였다. 룰라 신정부에서 이 정책이 지속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세계적인 농축산물 수출국)

농축산업 분야는 브라질 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 1위 식량 생산국은 중국으로 9,120억 불, 인도 4,331억 불, 미국 3,781억 불, 브라질 2,535억 불, 인도네시아 1,033억 불순이다. 중남미의 대표적인 식량 생산국가인 아르헨티나는 760억 불로 브라질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브라질의 광활한 국토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은 전 세계의 10억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식량 창고(bread basket)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브라질의 수출에서 농축산물은 2020년까지 연간 1천억 불 규모였으나, 2021년에는 1,205억 불, 2022년에는 1,483억 불로 증가하였다. 전체적



으로 농축산물은 수출에서 약 20%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브라질 농축산연맹(CNA)은 농축산물 자체의 수출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연관 산업까지 포함하면 수출액의 비중이 40%까지 커진다고 분석하고 있다.

브라질 농축산물의 주 수출국은 2021년 기준으로 중국 410.2억 불(34%), EU 179.8억 불(15%), 미국 90.7억 불(7.5%) 등이며 중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주 수출 농축산물은 대두(40%)가 압도적이며, 육류(16%), 임산물(10%), 곡물(8%), 사탕수수(8%), 커피(6%)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브라질 대두는 2022년에 1억2천4백만 톤을 생산하였는데 이 중 대부분이 중국으로 수출되었다.

(풍부한 에너지와 광물자원)

브라질 국영석유회사 Petrobras에 의해 지난 2006년부터 발견되기 시작한 브라질 대서양 연안의 염전층 하부에 있는 심해 유전은 길이 800km, 폭 200km에 달하는 전체 122,000km² 지역에 산재해 있다. 최대 500억 배럴의 석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기존 유전의 매장량 140억 배럴의 4배에 달하는 양이다.

2022년 원유 수출액은 568억 불로 2020년 248억 불, 2021년 383억 불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였다. 브라질 에너지연구공사(EPE)는 2026년까지 브라질의 하루평균 석유 생산량은 520만 배럴로 늘어나고 수출량은 300만 배럴에 달해 사우디, 러시아, 이라크, 캐나다에 이어 세계 5위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는 세계 10위권 수준이다.

브라질의 니오븀, 탄탈 매장량은 세계 1위이며, 주석(2위), 보크사이트(4위), 철광(5위), 우라늄(6위), 니켈(7위), 망간(8위) 등뿐만 아니라 다양한 광물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브라질에는 2천1백만 톤의 희토류가 매장되어 있는데, 이는 중국 4천4백만 톤, 베트남 2천2백만 톤에 이어 세계 3위의 규모이다. 이어 러시아 2



천1백만 톤, 인도 6백9십만 톤, 호주 4백만 톤, 미국 1백8십만 톤 수준이다. 2021년 희토류 생산량 1위는 중국으로 16만8천 톤이었으며, 2위는 미국으로 4만3천 톤이었다. 그러나 브라질은 매장량에 비해 생산량은 500톤에 불과하였다.

브라질의 광물자원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20년에는 366억 불 규모로 철광석(90%), 금(13%), 알루미늄(9%), 구리(8%), 니오븀(4%), 니켈(2%)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1년에는 철광석을 447억 불 수출하였는데, 중국에 65%, 말레이시아 6.4%, 나머지 국가들은 5% 이하로 수출되었다. 한국은 2.3%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 광물의 매장량 및 세계 순위>

광종	단위	브라질(A)	세계(B)	A/B(%)	세계순위
니오븀	백만톤	5.2	5.7	91.2	1
탄탈	천톤	90	180	50	1
주석	백만톤	2.5	11	22.7	2
보크사이트	백만톤	2,500	32,000	7.8	4
철광	십억톤	27	340	7.9	5
우라늄	천톤	309	4,410	7.0	6
니켈	천톤	8,300	150,000	5.5	7
망간	백만톤	57	5,200	1.1	8
동광	백만톤	15.4	950	1.6	-
아연	백만톤	6	220	2.7	-

자료 : “Mineral commodity summarise 2008“, US Geological Survey/
IBRAM(Institute Brazilian of Minerals)

(지속적인 투자의 유입)

브라질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FDI)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600억 불 이상이었으며 그 이전 10년간 연평균 유입액의 2배를 넘고 있다. 그러나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투자액이 대폭 줄어든 447억 불을 기



록하였다. 브라질에 투자하는 상위 10개 투자국을 살펴보면 중국과 미국, 그리고 스페인, 이태리,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가 주축이 되고 있다.

브라질에 외국인들의 투자를 저해하는 ‘브라질 비용’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기업들의 투자 활동은 활발하다. 브라질을 ‘미래의 나라’로만 인식하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투자에 있어 지속성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FDI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으며 투자액도 상당한 수준으로 늘어났다는 점이다.

2.3. 과학기술과 산업적 능력

브라질은 남미 유일의 제조업 국가이다. 브라질 경제에서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이며, 나머지 95%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차지한다. 브라질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군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 분야에 걸쳐 산업화가 이루어져 있다. 또한 Embraer이 생산하는 중형기 분야, Alcantara 발사기지를 통한 우주산업, 풍부한 자연자원을 활용한 생명공학 산업은 선도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중남미의 양대 제조업 국가인 멕시코와 브라질의 경제는 대조를 이룬다. 멕시코가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생산기지 역할을 하며 멕시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반면, 브라질은 제조업 생산품 대부분을 국내에서 소비하며, 수출은 1차 산품인 농축산업과 광물자원이 차지한다. 또한 브라질에 있어 수출은 GDP에서 20-30%의 비중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2.4. 다자주의에 기반한 실용 외교

브라질 외교의 특성은 다자주의에 기반한 실용주의라고 할 수 있다. 보우소나루 전 정부에서 외교에 이념적인 색채가 덧붙여지기는 하였지만 오랜 기간 유지해 온 전통은 살아 있다고 하겠다. 이 특징은 남미에서는 경쟁자가 없는 지역 강국이나, 국제무대에서는 미국, 중국 등에 비해서



는 국제적인 역할이 제한되어있는 현실을 바탕으로 태동한 것이다.

브라질은 유엔 총회에서는 매년 첫 번째로 기조연설을 하는 특별한 위치에 있으며, WTO 등 국제기구의 수장을 배출하는 등 유엔 등 다자무대에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더해 G7에 대항할 수 있는 BRICS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남미에서는 미주기구 OAS에 대항하는 남미국가연합 UNASUR을 발족시키기도 하였다. 그리고 아프리카와의 특수 관계를 토대로 이들과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BRICS는 브라질 외교에 있어 중요한 자산이다. 브라질이 남미대륙에서는 제1의 국가라는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미주 대륙 전체를 놓고 볼 때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는 힘들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BRICS의 구도는 미국과 브라질의 1:1 관계가 아닌 다자 구도를 만들어 주어 미국의 영향력을 완화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다.

아프리카는 역사적, 인종적으로 브라질과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다. 포르투갈은 사탕수수과 커피 농장, 금광 산업을 지탱하기 위해 아프리카로부터 4백만 명 이상의 흑인들을 노예로 들여왔으며, 흑인 노예는 백인들과 인종적으로도 섞이게 되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브라질은 아프리카에 대해 특별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으며, 아프리카 국가들도 브라질을 남다르게 생각하고 있다.

2.5. 안보 면에서 외부 도전의 부재

브라질은 1864년부터 1870년까지 강력한 세력이었던 파라과이와 전쟁을 하였는데,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와 함께 삼국 동맹을 결성하여 파라과이를 회복 불능의 상태로 몰락시켰다. 브라질은 이 전쟁 이후 약 150년을 전쟁이 없는 평화 상태로 지내고 있는데, 현재 남미에서 브라질에 군사력으로 대항할 수 있는 국가는 없는 상황이다.

3. 약점



3.1. 정치체제의 비효율성

브라질 정치체제의 비효율성은 선거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브라질의 상원은 총 81명으로 26개 주와 브라질리아 연방 특구에서 각 3명씩 선출되며, 하원은 총 513명으로 각 주의 인구 규모에 따라 선출 인원이 결정되고 주 단위 선거에서 각 정당의 후보들이 획득한 총득표수에 비례하여 정당별로 의석이 배분된다. 임기는 상원은 8년, 하원은 4년이다.

문제는 이 선거제도를 통해 수십 개의 정당에서 하원의원을 배출하게 되는데, 2021년 선거에서는 23개 정당이 의회에 진출하였다.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정당의 요건이 유효 득표수의 1.5%로 낮게 설정되어 있고, 후보자들이 정당의 비례대표 명부에서 유리한 순번을 받기 위해 정당을 옮기거나 새로운 당을 만드는 방법으로 의회 진출을 도모하다 보니 지나치게 많은 정당이 의회에 등장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극단적’ 다당제의 문제는 과감한 입법 활동 추진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상하원에서 특히 하원에서 과반을 차지하는 다수당이 등장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보니 행정부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친여 세력을 규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행정부의 주요 보직 거래, 친의원들이 추진하는 사업 지원 등의 수단이 동원되기도 한다.

3.2. 경제 양극화와 파생 문제

브라질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21년 기준 7,518불로 중남미 평균인 8,340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중남미에서는 21번째이며 역내 경쟁국인 아르헨티나(11위), 멕시코(13위)에도 훨씬 뒤떨어져 있다. 또한 2021년 실업률은 2019년 11.93%에 비해 코로나19로 인해 14.4%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 수치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인구까지 합하면 20% 이상이 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UNDP가 보고한 브라질의 2010-2021년 GINI 계수는 48.9로 중남미에서



콜롬비아(54.2), 파나마(49.8), 코스타리카(49.3)에 이어 4번째로 소득에서 불평등 구조를 나타냈다. 브라질의 GINI 계수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기는 하나 개선의 정도와 속도는 느리다. 2020년 기준으로 상위 20%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의 정도에서는 브라질은 54.7%로 콜롬비아의 58.3%에 이어 2위를 기록하였으며, 멕시코는 51.2%(8위), 아르헨티나는 47.3%(12위)를 나타냈다.

이러한 양극화의 문제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다. 부유한 백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남동부는 우파 정부를, 상대적으로 빈곤한 북부와 북동부 지역은 좌파 정부를 선호하는 정치 지형이 만들어졌으며,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좌파가 심하기는 하나 우파도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동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직전 연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재정 확대를 금하는 ‘재정지출상한제(Teto de Gasto)’도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공공부채는 날로 증가하여 재정건전성 확보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3.3. 취약한 경제 구조

브라질의 주 수출 품목인 농축산품은 전 세계적인 작황에 민감하며, 석유, 광물자원은 국제적인 경기 사이클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공급 과잉이 일어날 때 국제수지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 점은 1차 산품에 의존하고 있는 브라질 경제의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브라질 경제는 내수 지향적으로 운용되다 보니 남미 제1의 공업국 이면서도 공산품의 품질이 낮아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보우소나루 전정부에서는 경쟁력을 높이려고 국내 산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EU, EFTA, 캐나다, 한국, 싱가포르 등과 FTA 체결을 추진하였으며, 국가 전반에 선진화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OECD 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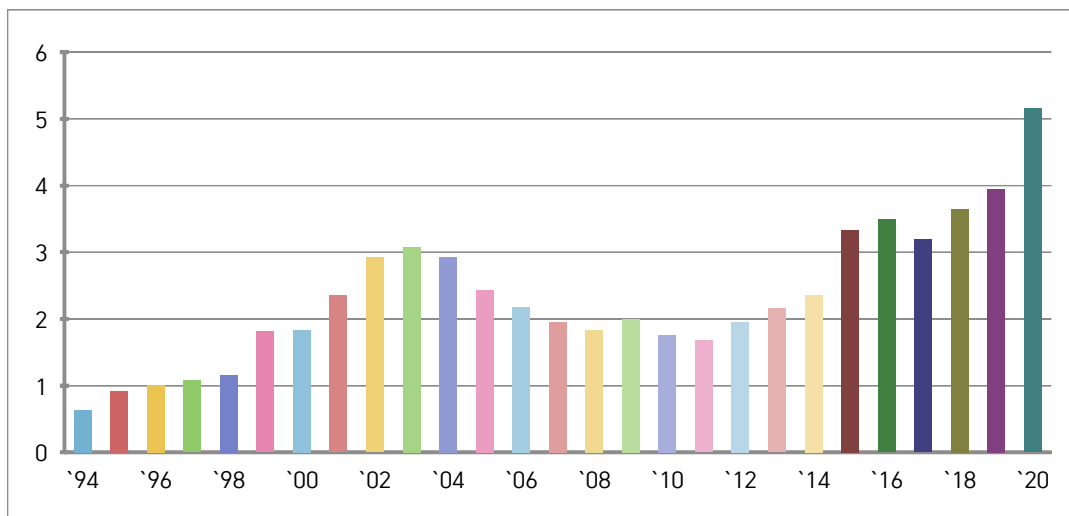


도 추진하였다.

그러나 룰라 신정부가 글로벌보다는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 지역에, OECD보다는 BRICS 등과의 유대와 협력에 방점을 두게 될 때 브라질의 경쟁력 향상은 쉽지 않을 것이다.

브라질 경제 체질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달러 대비 환율은 1994년 카르도주 당시 재무장관이 ‘헤알 플랜(Plano Real)’을 도입할 당시에는 1:1이었으나, 이후 꾸준히 평가절하되어 2023년 1월 현재 1:5를 상회하는 수준이 되었다. 이는 브라질 경제가 국내의 정치 경제적 요인과 외부의 충격에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브라질 경제의 체질 문제이며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은 과제이다.

<달러 대비 브라질 헤알의 변동 추이>



*출처 : 브라질 응용경제연구소(IPEA), 2021

3.4. 브라질 코스트

(과도한 노동권 보장)

브라질 경제를 이야기할 때 ‘브라질 코스트(Brazil Cost)’가 언급이 되는



데, 브라질의 비효율적인 제도, 부담스러운 세금, 까다로운 노동 법규, 부정·부패의 성행 등을 지적한 것이다. 세계은행의 2020년 기업환경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브라질은 190개국 중 124위로 칠레 59위, 멕시코 60위, 콜롬비아 67위, 페루 76위 등 태평양동맹 국가들에 훨씬 뒤처지며, 아르헨티나 126위와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브라질 코스트의 대표적인 예는 까다로운 노동 법규일 것이다.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은 좋으나 사용자의 권리를 제약하며 양측 간에 균형이 무너져 있는 상황은 브라질로 FDI가 유입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이전 테메르 정부에서 노동 분야 개혁이 한 차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타국과 비교하여 여전히 과도한 노동권 보장은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고 있다.

(만연한 부패와 높은 범죄율)

중남미국가들은 만연한 부패에 시달리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브라질의 공공 부문에서 발생하는 뇌물, 횡령, 사익 추구 등 부패에 대해 전문가와 기업인들은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데, 이 수준은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페루와는 비슷하며, 우루과이, 칠레보다는 월등하게 심하고, 멕시코보다는 약간 나은 것으로 평가된다.

2014년에 밝혀진 대형 부패 스캔들인 ‘Lava Jato (Car Wash)’는 브라질이 부패한 국가라는 이미지를 드러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법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긍정적인 인식도 제공하였다. 그러나 수년간의 재판을 거치면서도 사법 시스템에 의해 단죄받은 정치인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보니 부패 문제는 브라질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중남미는 살인, 폭력 등의 범죄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심하며, 전 세계 위험한 50개 도시 중에 40개가 중남미에 소재한다. 브라질도 이 문제에 있어 예외는 아니며 브라질의 범죄는 심각한 수준이다. 범죄의 발생은 기본적으로 소득 불균형으로 인한 양극화가 큰 원인이며, 빈곤층은 마약, 조직범죄 등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치안을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



은 과제이다.

(열악한 인프라 시설)

브라질은 광활한 나라를 연결하는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인프라의 질은 수송, 에너지, 통신, 수자원, 폐기물, 국방 등 각종 분야를 살펴보고 평가할 수 있다. 2019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된 전 세계 국가들의 인프라의 질 평가에 따르면 브라질은 78위로, 중남미의 칠레 41위, 멕시코 54위, 아르헨티나 68위보다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브라질은 수송과 관련하여 철도의 비중이 매우 낮으며, 도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그나마 도로도 충분히 건설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그리고 물류를 도로에 의존하다 보니 화물연대에 의한 파업이 발생할 때는 엄청난 피해를 겪게 된다. 또한 7천3백km에 달하는 해안선을 갖고 있는데 항구의 영세성과 비효율성으로 물류의 적체도 심각하다.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2021년 디지털 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브라질은 전체 64개국 중에 51위의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였다. ICT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5G를 도입하려고 하는 등 미래에 대한 준비는 추진하고 있으나, 기술력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중남미는 전체적으로 아프리카를 제외하고는 순위가 매우 낮으며, 국가 별로는 칠레 39위, 브라질 51위, 멕시코 56위, 페루 59위, 콜롬비아 59위, 아르헨티나 61위를 나타내고 있다.

3.5. 취약한 의료보건 체계

코로나19가 2020년 초에 유행할 때, 당시 보우소나루 정부는 코로나19를 ‘독감’ 정도로 치부하며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오히려 적극적인 보건 정책이 경제에 ‘독’이 된다는 생각으로 대응하였다. 그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약 70만 명이 사망하는 비극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비극에는 적절하지 못한 정부의 대책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을 어렵



게 하는 취약한 의료보건 체계에도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2022.12.21.기준>

국가	확진자(A)	사망자(B)	B/A(%)
전세계	659,121,949	6,676,144	1.01
미국	101,865,927	1,113,808	1.09
인도	44,677,449	530,680	1.19
프랑스	38,971,117	160,747	0.41
독일	37,088,426	160,246	0.43
브라질	35,992,620	692,210	1.92
한국	28,390,646	31,549	0.11
일본	27,581,407	54,026	0.20
이태리	24,884,034	183,138	0.74
영국	24,089,042	198,271	0.82
러시아	21,735,851	393,166	1.81

출처 : 통계 사이트 statista

브라질은 보편적 보건의료 체계로 모든 사람이 보건의료 체계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평가할 수 있으나,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이 높지 않다는 점은 문제이다.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역량이 매우 낮으며,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의 제공도 미비하다 보니 이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원과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3.6. 지역 강국의 한계

브라질이 남미대륙에서는 제1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미주 대륙 전체를 놓고 볼 때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는 힘들다. 미국은 지리적, 역사적으로 ‘뒷마당’으로 간주 되는 중남미에 중국, 러시아 등 경쟁 세력이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브라질 정부도 좌와 우로 이념적 지형이 변하더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중국이 무역과 투자를 앞세워 중남미 지역에 공세적으로 접근함에



따라 미국은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카우보이 외교’와 중국의 ‘늑대 전사 외교’가 충돌할 때 남미 제1의 국가인 브라질을 포함하여 중남미국가들은 일방의 입장에 줄을 서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 G2의 충돌에서 중남미국가들이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극히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4. 기회

4.1. 글로벌 공급망 재편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국제적으로 식량과 에너지, 광물자원에 대한 가격이 폭등하고, 이에 따라 브라질은 혜택을 보았다. 또한 미국-중국 간의 갈등도 중국이 대두 등 식량을 브라질의 공급에 의존하게 하였다. 브라질의 2022년 수출액은 3,340억 불을 기록하였으며,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2020년을 저점으로 급격하게 반등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농축산물과 석유, 광물자원의 수출국인 브라질이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이 와해 되고, 이해관계가 맞는 국가들끼리 다원화된 공급망이 새롭게 형성되어 가는 과정은 브라질에 기회가 되고 있다. 1차 상품 수출국인 브라질이 이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4.2. 남미의 핑크 타이드

남미는 국가별로 좌우 정부 간 교체가 심하고, 지역 전체의 변화로 이어지곤 한다. 2000년대 초에 좌파 정부가 남미의 주류가 되는 제1차 핑크 타이드가 형성되었으며, 이후 2020년대 전후로 제2차 핑크 타이드가 구축되었다. 2018년 멕시코를 필두로 2019년 아르헨티나, 2020년 볼리비아, 2021년 페루, 칠레, 콜롬비아에 좌파 정부가 들어섰으며, 2023년에는 남미 제1의 국가인 브라질까지 가세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브라질이 남미에서 우호적 세력의 지원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남미공동시장(MERCOSUR) 내에서 이념적 갈등으로 힘을 소비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MERCOSUR의 중심 국가인 브라질은 경쟁국인 아르헨티나와의 이념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이 공동체를 이끌고 나갈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룰라 정부 제2기인 2008년 5월 브라질리아에서 출범한 남미국가연합(UNASUR)은 남미의 이념적 지형이 변함에 따라 분열에 직면하였다. 2017년 8월 베네수엘라 사태를 계기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등 6개국은 ‘리마 그룹(Lima Group)’을 결성하고 2018년 4월 UNASUR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제 남미의 주요 국가들이 동일한 이념적 지형을 갖게 됨에 따라 UNASUR이 활성화될 것이다. 그리고 UNASUR의 중심에 브라질이 위치할 것이다.

중남미에는 2개의 경제블록이 있는데,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가 회원국인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칠레가 회원국인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이 있다. 이 두 경제블록이 이념적으로 동일한 지향점을 가지게 됨으로써 양 블록 간에 시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다.

5. 위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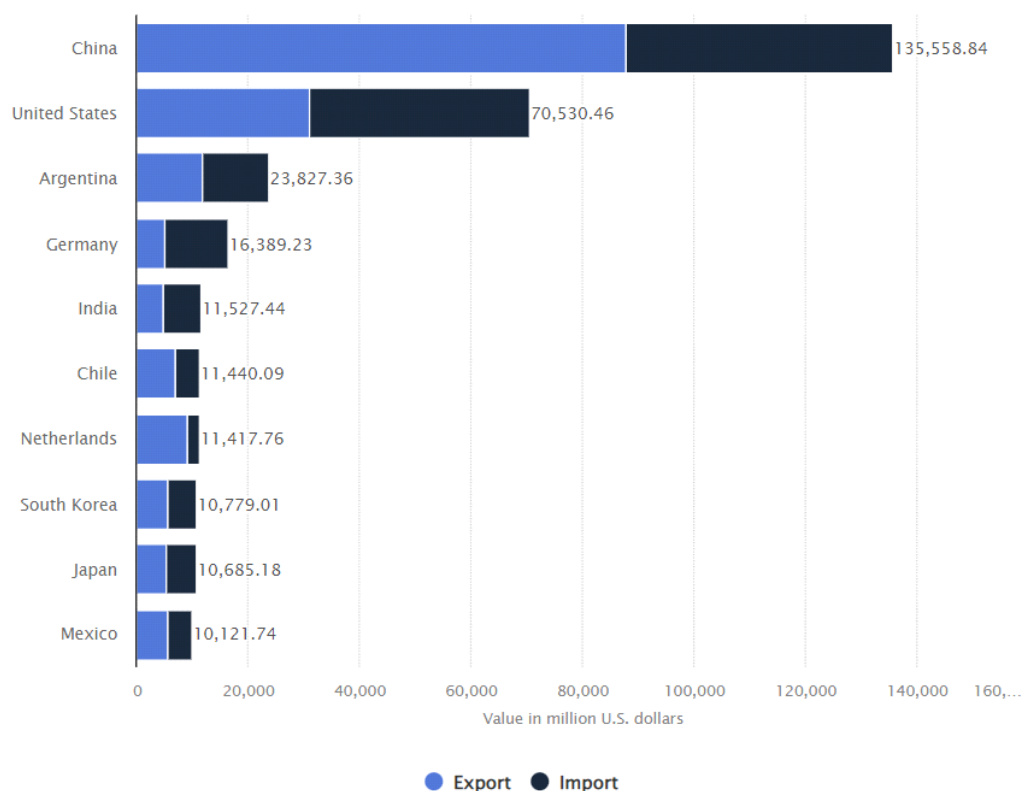
5.1. 줄타기 외교의 어려움

미국과 중국의 전방위적인 갈등으로 브라질은 어느 일방에 대한 지지를 강요받게 될 수 있다. G2의 갈등이 격화되면 될수록 브라질의 입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브라질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금도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으나, 최근 경제력을 앞세운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중국의 공세가 너무 ‘공격적’이라 브라질 내에서 반감도 있으나, 중국의 경제력이 필요한 브라질로는 뚜렷한 대응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G2의 갈등은 세계질서와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이고 장기간에 걸쳐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브라질로서는 이 문제에 잘 대응하여야 한다. 브라질이 G2로부터 ‘구매’를 받고 있기는 하나 어느 일방에 줄을 설 수도 없는 상황이다. 브라질은 G2를 대상으로 레버리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대표 수출품인 대두, 철광석도 중국의 구매력에 휘둘리는 상황이다.

<2021년 브라질의 주요 교역국>



출처 : statista

5.2. 국제적인 아마존 훼손 비난

아마존은 ‘지구의 허파(Lungs of the Earth)’로 간주되며, 기후변화 방지, 아마존강을 통한 최대 담수 공급, 전 세계 생물 다양성의 보고 등으



로 역할하고 있다. 아마존 열대우림은 약 5.5백만km²이며 전 세계 열대우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브라질을 포함한 8개국이 공유하고 있다. 브라질은 전체 아마존에서 열대우림 기준으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아마존을 둘러싼 국제적 논란의 중심에는 아마존 열대우림의 목초지와 농지로의 전용 문제가 존재한다. 브라질의 국립우주연구소(INPE)의 데이터에 따르면, 1970년 열대우림 수준을 100%로 간주하였을 때 20년 후인 1990년에는 90% 수준, 이후 30년 후인 2020년에는 8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마존의 산림 전용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주된 동인은 농축산업이다. 목축이 주요 원인이며, 사료와 바이오디젤을 얻기 위한 대규모 대두 농지조성 활동도 훼손에 일조하고 있다. 브라질이 아마존 훼손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국가적 이미지 훼손과 도덕적 영향력의 감소, 소비자들의 브라질 농축산물에 대한 거부 등에 직면할 것이다.

6. 나가며 : 브라질과의 협력 방향

브라질은 세계 제5위의 국토와 2억이 넘는 인구에서 나오는 강점을 가진 국가이나, 잠재력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도전을 극복해야 한다. 특히 브라질은 남미를 뛰어넘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제조업 기반을 갖추어야 하며, 글로벌 가치 사슬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또한 아시아에서 중국에 경도된 관계를 교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은 매력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다.

한국으로서도 브라질은 남미대륙으로 외연을 확대하는데 중요한 국가이다. 브라질의 거대한 소비 시장, 풍부한 원유와 광물자원, 제조업 관련 협력 등 경제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브라질을 기반으로 중남미로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브라질은 우호적인 세력이 될 수 있다. 특히 제2차 핑크 타이드로 중남미에서 브라질의 리더십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된 상황에서 브라질과의 관계 강화는 필수가 되고 있다.



현재 브라질과 한국 간 우호 관계의 토대는 통상과 경제 협력이다. 브라질은 한국에 농산물, 원유, 광물, 에탄올, 육류, 펄프 등을 수출하는 공급망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이며, 또한 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부품, 의료기기, 제약, 플라스틱 등의 수입국이다. 현재 진행 중인 한국과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의 무역협정 협상이 타결되면 MERCOSUR의 중심 국가인 브라질과의 관계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한-MERCOSUR 무역협정은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양국 간에 교역이 활발해지면 자연스럽게 인적 교류도 증가하고, 양국 국민의 심리적인 거리감도 축소될 것이다. 이 무역협정이 갖는 함의를 고려하여 한국과 브라질이 윈-윈할 수 있는 타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브라질이 강하게 요구하는 소고기 수입 요구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브라질과의 협력에 있어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제력이 세계 10위권이기는 하나 브라질이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에 진출할 수는 없다. 한국이 잘 할 수 있고,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강점을 가지는 과학기술, ICT, 5G, 전자정부, 교육, 의료보건, 바이오, 인프라 건설 등에 집중하여 구체적인 협력의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브라질 정부는 OECD 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국의 위상을 높이려 한다. 브라질이 OECD 회원국이 된다면 OECD의 제도와 규범이 브라질에 정착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브라질에서 한국 기업의 활동 환경은 좋아질 것이다. 또한 OECD를 통한 양국 간의 협력도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브라질의 OECD 가입은 여러모로 의미가 큰 사안이므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7. 여론 주도자

(1) Diogo Mainardi

- 1962년생, London School of Economics에 입학하였으나, 책을 통한 교육이 더욱 유익하다고 판단하여 1년 만에 자퇴함
- 1999년부터 Veja 주간지에 문학/예술에 대해 기고하였으며, 2002년부터는 정치/경제에 대해 기고하기 시작함.
- 2004~2020년간 Globo News 케이블 뉴스 채널의 'Manhattan Connection' 토론 프로그램에 진행자로 활동함
- 룰라 대통령의 좌익 성향을 비판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음

(2) Merval Pereira

- 1949년생, 변호사 이외에 문학 작가, 기자로 활동함
- O Globo 일간지의 칼럼니스트, CBN 라디오 방송사와 Globo News 케이블 뉴스 채널의 정치 해설자로 활동함
- 2011년부터 브라질 문학 아카데미 회원, 2022년에는 아카데미 회장으로 임명됨

(3) Fernando Gabeira

- 1941년생, 기자, 문학 작가, 정치인으로 활동함.
- 1960년대에 기자로 활동하였으며, 1964년 발생한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여 체포되기도 하고 박해를 받았음. 거의 10년간 해외에서 망명 생활을 하였으며 1979년에 브라질로 귀국함.
- 1986년 PT(노동자당)에 입당하여 정치 생활을 시작함. 1989년 PT를 탈퇴하고 PV(녹색당)에 입당하여 대통령으로 출마(당시 0.18% 득표)하였으며, 이후 1994~2011년간 연방 하원의원으로 활동함
- 현재 문학 작가, Globo News의 정치 해설자로 활동함



(4) Guga Chacra

- 1976년생, Universidade Paulista 방송학과 졸업, Columbia University 학사학위를 취득함.
- O Estado 일간지, Istoe É 주간지, Folha de São Paulo 일간지 등의 리포터로 1998년부터 활동함
- 해외(부에노스아이레스, 베이루트, 뉴욕 등)에 특파원으로 활동하였으며, 중동 문제 전문가로 알려짐.

(5) Eduardo Moreira

- 1976년생, 기업인, 문학/각본 작가, 금융 투자자
- 2013년에 Época Negócios 주간지로부터 40세 이하 브라질 우수 기업인으로 선정됨
- 문학 작가로서의 작품 10개 중 2개는 브라질 내에 베스트셀러가 됨
- Exame 주간지와 TV Estadão의 칼럼니스트로 활동함
- 2022년부터 ICL News(인디 인터넷 방송)의 진행자로 활동함

(6) Vera Magalhães

- 1972년생, 상파울루대 언론학과 졸업, 기자 및 프로그램(라디오/TV) 진행자로 활동함.
- 1997~2015년간 Folha de São Paulo에서 리포터, 편집장으로 활동함
- 2015년부터 Veja 주간지의 칼럼 담당, Jovem Pan 라디오 방송에서 정치 뉴스 진행자, Estadão 일간지의 정치 칼럼니스트, Globo 방송사의 경제/정치 해설자로 활동함
- 2020년에 TV Cultura 방송사의 Roda Viva 인터뷰 프로그램 진행자로 활동함. 2021년에 CBN 라디오 방송에 해설자로 활동을 시작함.



(7) Luis Nassif

- 1950년생, 기자, 1969년 상파울루대 언론학과에 입학, 1971년부터 Veja 주간지 리포터로 활동함
- 1979년부터는 Jornal da Tarde, 이후 1983년에는 Folha de São Paulo에서 경제 분야 전문기자로 활동함.
- 2003, 2005, 2008년에 우수 경제 기자로 선정됨
- 이후 Bandeirantes TV, TV Cultura에 경제 해설자로 활동함

(8) Monica Bergamo

- 1967년생, 기자, 상파울루 Casper Libero 대학 언론학과 졸업
- Folha de São Paulo 칼럼니스트, Band News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진행자로 활동함
- 1995년부터 기자로서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으나 2012년부터 정치 분야를 주로 다룸.
- 2013년에 최우수 칼럼니스트로 선정, 2015년에는 존경받는 TOP50 기자 중 한 명으로 선정됨.

(9) Rubens Barbosa

- 1938년생, 상파울루대학(USP) 법학과 졸업
- 1960년에 브라질 외교 아카데미(Instituto Rio Branco)에 입학하여 외교관 생활을 시작, 영국과 미국에서 대사로 재직한 바 있음.
- 현재 상파울루 산업연맹(FIESP) 무역위원장을 맡고 있음.
- 국제관계 전문가로 Estado de São Paulo와 O Globo 일간지에 주기적으로 기고하고 있음

(10) Miguel Reale Junior

- 1944년생, 상파울루대(USP) 법학과 졸업, 1971~2014년간 상파울루대



- 법학과 교수로 활동함. 상파울루 문학 아카데미 명예 회원임.
- 1990년에 PSDB(브라질사회민주당)에 입당하여 2017년까지 활동함. 2017년 PSDB가 당시 미셰우 떼메르 대리 대통령의 소속당인 PMDB(브라질민주운동당)를 지지하자 탈당함.
 - 1983~1984년간 상파울루 치안부 장관, 2002.4월~10월 브라질 법무부 장관직을 맡았음.
 - 2015년 지우마 후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2021년에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탄핵을 청구하였음.
 - 브라질 주요 언론사에 주기적으로 기고하고 있음.



첨부: 브라질 개관

1. 개관

- 브라질연방공화국(Federative Republic of Brazil)은 북위 5°16', 남위 33°45'에 위치하며 남북거리가 4,320km에 달하며, 국토 면적은 8,514,876km²에 달하는 세계 제5위의 대국임.
- 인구는 2021년 기준으로 213,990,000명이며, 2015년 기준으로 백인 45.21%, 혼혈 45.06%, 흑인 8.86%, 동양인 0.47%, 인디오 0.38%, 기타 0.02%를 나타내고 있음.
- 대통령중심제로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며 1차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며, 상원은 81석(임기 8년), 하원은 513석(임기 4년)임. 사법부는 연방 최고법원(헌법재판소), 대법원, 최고노동법원, 최고선거법원, 최고군사법원이 존재함.
- 26개 주와 수도 브라질리아가 있는 연방 특구로 구성되며, 주지사의 임기는 4년이며, 중임이 가능함.
- 국내총생산(GDP)은 2021년 기준 1조6,100억 불, 1인당 GDP는 7,518 불을 기록함. 화폐단위는 헤알(Real)이며, 환율 변동이 심하며 1994년 1불=1헤알에서 출발하여 2023년 현재 1불=5헤알+를 기록하고 있음.
- 군사력은 35만7천 명으로 육군 22만3천, 해군 6만5천, 공군 6만9천 수준임.
- 아마존 열대우림은 약 5.5백만km²이며 전 세계 열대우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브라질을 포함한 8개국이 공유하고 있음. 브라질은 열대우림 기준으로 전체 아마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2. 국내 정치 동향

- 1500년부터 1822년 Dom Pedro I 세가 독립을 선언하기까지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음. 1889년 왕정에서 공화국으로 전환되었으며, 1964년부터 1985년까지는 군정이 있었음.
- 이후 정부는 Tancredo Neves (1985), Jose Sarney (1985-1990),



Fernando Collor de Mello (1990-1992), Itamar Franco (1992-1994), Fernando Henrique Cardoso 제1기 (1995-1998), Cardoso 제2기 (1999-2002), Luiz Inacio Lula da Silva 제1기 (2003-2006), Lula 제2기 (2007-2010), Dilma Rousseff 제1기 (2011-2014), Dilma 제2기 (2015-2016), Michel Temer (2016-2018), Jair Bolsonaro (2019-2022), Lula 제3기 (2023-2026) 순으로 이어짐

- 브라질 정치의 특징 중 하나는 극단적인 다당제임. 1979년 민주화가 시작되면서 양당제가 폐지되고 다당제의 근거가 마련됨. 그러나 정당 정치의 전통이 없어 선거 때마다 새로운 정당이 탄생하거나 기존 정당이 이합집산하고 있음. 2023년부터 시작되는 하원에는 선거의 결과 23개 정당이 진출하였음.

3. 외교정책

(외교정책 기조)

- 브라질은 전통적으로 내향적 국가로서 대외문제가 국내 정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미미함. 일부 통상 분야 이슈를 제외하고는 국익과 직결된 외교 현안이 별로 없으며, 역내 및 국제사회에서 위상 강화가 주요 외교 목표임.
- 전통적으로 서방세계와 우호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노동자당 집권 (Lula 및 Dilma) 이후에는 남-남 협력 중시 기조하에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 주안점을 두는 개도국 대변형 외교정책을 전개함. Bolsonaro 정부에서는 이에 반해 대미 관계 강화,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추진함. 룰라 제3기 정부는 이전의 외교정책으로 회귀할 전망이다.
- 국제질서가 복합적이고 다극 체제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및 IMF 등 주요 국제기구들은 설립 당시의 권력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국제 거버넌스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특히 독일, 일본, 인도와 함께 G4의 일원으로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하고, IMF 쿼터 개혁을 주도함.



- 브라질은 최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10회), 적극적인 PKO 참여(아이티, 레바논 등에 2,200여 명 파견) 등을 통해 유엔 내 위상 강화를 추진함.
- BRICS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글로벌 거버넌스에 영향력 확대를 추구함. 다만 BRICS가 반미 플랫폼화하는 것을 경계하고 기존의 대미 관계를 해치지 않도록 유의해 나가고 있음.
- 냉전 종식과 함께 미국 일변도 외교에서 벗어나 주변국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1991년 남미공동시장(MERCOSUR) 창설과 함께 인근국과의 협력 증진을 강화함.
- 룰라 정부는 NAFTA를 매개로 북미에 경도된 멕시코로 인해 중남미(Latin America)의 정체성 확립은 어렵다고 인식하고, 남미(South America)를 대상으로 2008년 출범한 남미국가연합(UNASUR)의 창설을 주도함. 또한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미주기구(OAS)를 견제하기 위해 베네수엘라와 함께 라틴아메리카·카리브국가공동체(CELAC)를 2011년 창설함.
- 보우소나루 정부에서는 베네수엘라 사태로 유명무실해진 UNASUR을 탈퇴하고, 칠레, 콜롬비아 등 역내 우파 국가들이 주도하는 남미발전포럼(PROSUL)에 2019년 참여함. 룰라 신정부에서는 UNASUR로의 복귀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 보우소나루 정부에서는 OECD 가입을 추진하였으며, 국내의 산업계, 경제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도입하려고 하였음. 중남미에서는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가 OECD에 이미 가입한 상황에서 브라질의 OECD 가입 추진 노력은 룰라 신정부에서도 지속될 전망이다.

(주요국과의 관계)

- (미국) 브라질은 전통적으로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룰라 정부 시절 남-남 협력 중시 기조하에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시작하면서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함. 룰라와 지우마 정부는 국제질서의 다극화를 추구하며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려고 하였으며 이 과



정에서 종종 미국과 대립적인 입장을 개진함. 보우소나루 정부에서는 이전 정부의 대외정책을 비판하며 대미 관계 강화에 적극적이었음. 룰라 신정부의 외교는 이전 집권기의 외교로 회귀할 전망이다.

- (중국) 중국은 브라질의 최대 교역대상국이며, 브라질은 2012년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이후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함. 중국은 브라질의 1차 상품 확보 및 중남미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경제력을 동원하여 진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중국의 대브라질 진출 확대에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으나 브라질로서는 실용적인 차원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음.
- (일본) 일본은 전통적으로 브라질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중국의 진출 확대로 영향력이 감소 되는 추세임. 브라질에는 오랜 이민의 결과 2백만으로 추정되는 일본계 커뮤니티가 존재하며, 일본에는 해외에서는 최대 규모인 20만 명의 브라질인들이 거주하고 있음. 2013년 아베 총리의 브라질 방문 계기에 양국은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음.
- (EU) 브라질은 유럽계 이민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회인 만큼 역사, 문화, 경제, 정치적으로 EU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 브라질은 EU와의 관계 심화를 위해 2007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정상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음. 2019년에는 20년 동안 진행되어 오던 EU-MERCOSUR 무역 협상이 타결되었음. 동 무역협정은 보우소나루 전 정부의 아마존 훼손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으로 EU에서 비준을 미루고 있음.

4. 국방 동향

- 브라질의 군사력은 357,000여 명이며, 육군 223,000명, 해군 65,000명(해병대 17,000명 포함), 공군 69,000명 수준이다.
- 브라질의 국방비는 2018년 기준 세계 11위로 부족하지 않은 편이나, 인건비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전력 증강에는 10% 정도가 투입됨. 외부 위협이 없는 환경과 군인 연금 및 봉급에 예산 대부분이 투입되는 현실로 방산 기술 향상 및 수출은 진전이 더딘 편임.



- 브라질은 1980년대까지 연간 15억 불의 무기와 군사 장비를 수출하였던 세계 8위의 방산 수출국이었으나, 20여 년간 지속된 군사독재에 대한 반감으로 방산 분야 투자가 저조했음. 2000년대 중반부터 국가 위상에 맞는 국방, 안보 전략 추진으로 군 장비 현대화와 방산 분야 재건을 동시에 추진함.
- 기본훈련기, 수송기, 다연장 로켓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기와 소구경 탄약은 독자 설계 및 제작을 할 수 있음. 첨단 기술 분야는 미국, 유럽, 이스라엘과의 협력을 통해 확보하고자 함.
- 항공 분야는 브라질 방위 산업에서 가장 발전한 분야임. Embraer는 세계 3위의 항공기 제작사로 기본훈련기 겸 경공격기 Super Tucano를 생산하였고, 2019년에는 KC-390 제트엔진 수송기를 개발, 포르투갈에 5대를 수출한 바 있음.
- 브라질은 프랑스와 협력하여 2023년까지 재래식 잠수함 4척, 2029년까지 핵추진 잠수함을 전력화할 계획임.

5. 경제정책

- 브라질은 1990년대에 시장 개방 및 공기업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바 있었으나, 2000-2010년대 룰라 및 지우마 정부 시절 기존 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고, 심해져 유전에 대한 주권 강화 및 국내 제조업 육성을 위한 기술이전, 국내 생산 정책을 추진하였음.
- 2016년 지우마 대통령 탄핵 후 출범한 테메르 정부에서는 통상정책을 개방으로 변경한 후 EU와의 무역 협상 재개, EFTA, 캐나다, 한국과 무역 협상을 개시하였으며, 보우소나루 정부는 2019년 EU, EFTA와의 협상도 타결하였음. 현재 캐나다, 한국, 싱가포르와 협상 중이며, 태평양동맹과도 시장 개방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임.
- 1991년 출범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중심 국가로서 역내 국가 간의 결속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여타 중남미 국가와의 경제통합을 추진 중임.
- 1995년에 헌법을 개정하여 통신, 전력, 항만 석유개발 분야 등에 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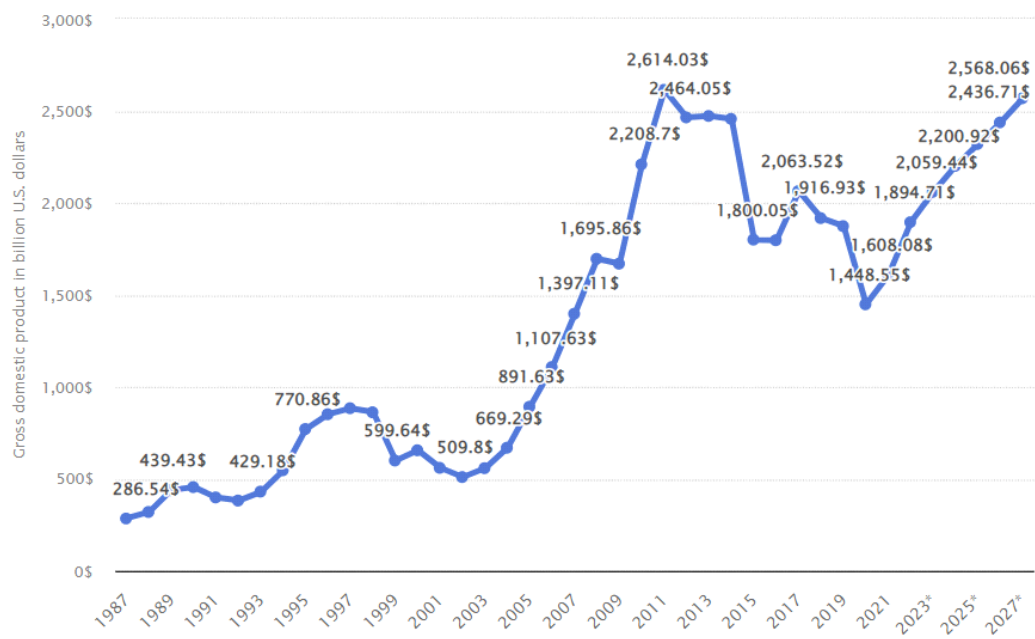


자본 참여를 허용하고, 내외국인 차별을 철폐한 이후, 외국자본의 적극적인 유치정책을 추진함.

- 룰라 정부 2기인 2007년부터 인프라 확충을 위한 ‘경제성장 촉진 프로그램(PAC)’을 추진했으나, 실제 실행된 투자는 계획 대비 50% 미만으로 성과가 미흡했음. 시장 친화적 성향의 테메르 정부는 2016년부터 ‘투자 촉진 프로그램(PPI)’을 통해 공항, 도로, 철도,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투자 확대를 추진하였으며, 보우소나루 정부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계승하였음.
- 룰라 제3기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경제정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과거 집권기(2003-2010)에서 추진하였던 Bolsa Familia 등 빈곤층 지원 정책을 재추진하고, 일자리 확대, 임금인상, 저소득층 주택지원정책 등 사회복지 정책을 강화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전년도 물가상승률 이상의 재정 확대를 금지하는 ‘재정지출상한제(Teto de Gasto)’는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또한 국책은행을 통해 중요 산업에 대한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필요시 환율 안정화를 위해 외환시장에도 개입하고, 진행 중인 우체국, 전기국영공사의 민영화에도 반대할 전망이다. 노동자들의 사회적 보호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노동법을 개혁하겠다고 공약하여 사실상 테메르 정부에서 이루어진 노동 개혁법을 되돌릴 것으로 전망됨.
- 대외 통상의 경우 EU-MERCOSUR 무역협정의 경우 재협상 등 기존에 추진되던 무역협정 협상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며, 보우소나루 정부에서 추진되던 OECD 가입도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이 큼.
- 환경보전 측면에서는 아마존 훼손 방지 노력을 강화하는 등 이전 정부와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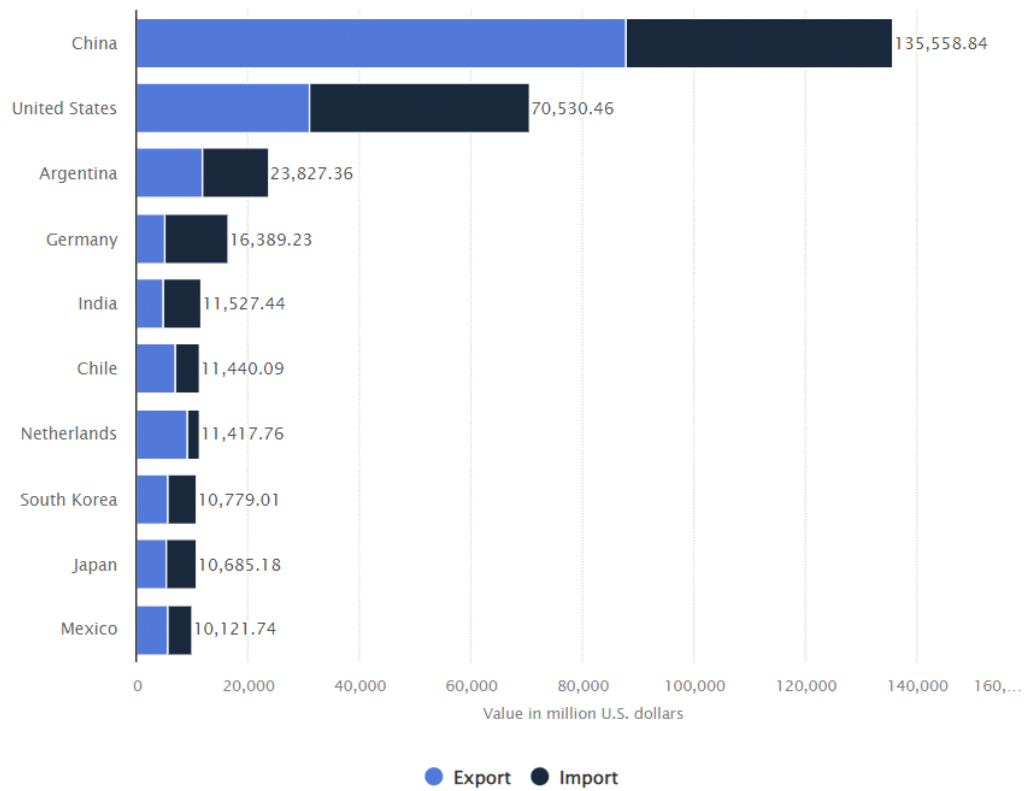
<브라질의 GDP 변화>



출처 : statista (IMF 1987-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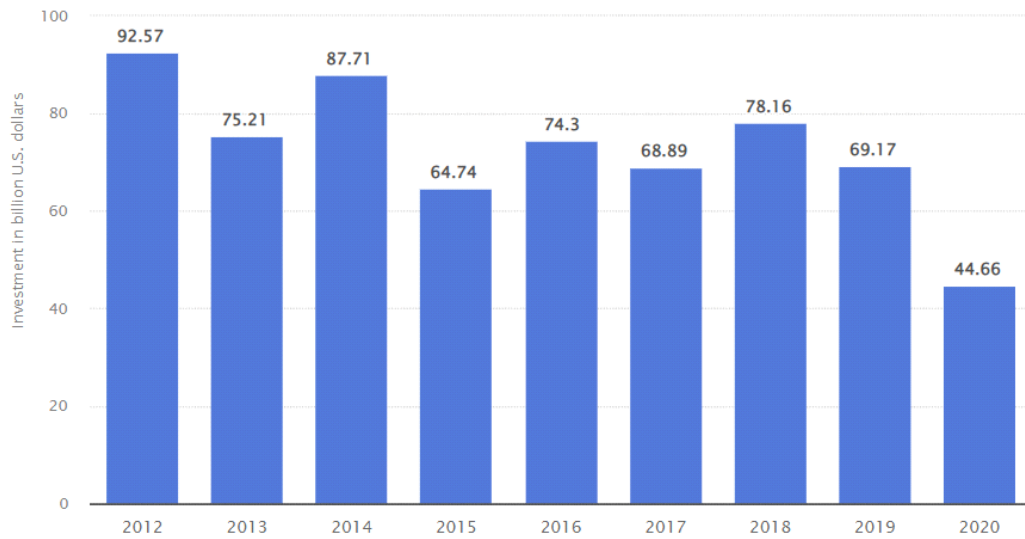
<2021년 브라질의 주요 교역대상국>



출처 : statista



<브라질에 대한 FDI 변화>



출처 : statista (UN 2021-2020)



6. 사회 문화 교육 분야

- (인종) 브라질은 유럽계 백인, 혼혈인구, 아프리카계 흑인, 동양계 이민, 원주민으로 구성된 다인종 국가이며, 인종 간의 혼혈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보편화되어 있음.
- 유럽계 백인은 포르투갈계와 스페인, 이태리, 독일계 이민의 후예로서 주류였으나 비중이 낮아지고 있음 (2000년 53.74%→2015년 45.51%). 혼혈인구는 백인과 원주민, 백인과 흑인 간의 혼혈로 인구의 45%를 차지하며, 흑인은 앙골라, 모잠비크 등에서 노예로 유입된 인구로 8.6%를 차지함. 동양인은 일본, 중국, 한국 등에서 온 이민자로 1%를 차지함. 그리고 소수의 원주민이 밀림 지역에서 생활함.
- (문화) 브라질 문화의 특징은 다양한 인종으로부터 유래한 문화가 혼합되어 구현된 ‘다양성’이라 할 수 있음. 지역별로도 문화적 특성이 다른데, 북부는 인디오, 남부는 이태리와 독일, 북동부는 아프리카, 내륙 및 남동부는 포르투갈 문화의 영향이 강함.
- (교육) 브라질 사람들의 평균 교육 기간은 7.2년(한국은 11년)에 불과하고, 초, 중등 학생의 16%는 유급하는 실정이며, 학생들이 실제 참여하는 하루 수업 시간은 3시간에 불과함.
- 브라질 정부는 교육 혜택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학생들의 수준 저하는 교사의 자질 문제에 상당 부분 기인함. 교육 예산 중 기초교육에 투자되는 예산이 많지 않고 교육 예산의 1/4 가량이 전체 학생의 2%에 불과한 국공립대학에 지출되는 모순적 구조로 인해 교육의 양극화가 발생함.
- 사립고등학교 출신의 학생들이 국공립대학에 입학하여 무상교육을 받고, 저소득층의 자녀는 고액의 사립대학교에 진학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이 존재함.

7. 한국과의 관계

- (기본 관계) 브라질은 중남미국가 중 한국이 최초로 수교(1959.10.31.)한 나라로서, 지리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다양한



- 분야에서 협력을 꾸준히 확대하였으며,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브라질 방문 시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였음.
- 1996년 김영삼 대통령이 수교 이래 최초로 브라질을 방문한 이후 정상 간 교류는 지속되었음. (김영삼 1996년, 노무현 2004년, 이명박 2008년, 2012년, 박근혜 2015년/ Cardoso 2001년, Lula 2005년, 2010년, Dilma 당선자 2010년)
 - (한국에 대한 기대) 브라질 정부, 경제계 인사들은 한국 발전의 원동력이 과학기술 및 교육 발전에 있다는 인식하에 이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함. 아울러 한국의 첨단분야 기업의 브라질 진출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한국 기업의 브라질 현지 기관과의 협력을 강조함
 - (대한반도 정책)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기본입장 하에 남북한, 북미 간 정상회담을 지지하였음. 또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실험 관련 국제사회의 규탄 메시지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함.
 - (경제통상 관계) 양국 교역은 2011년 181.6억불로 최고치 달성 후 계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1/2 수준에 머물고 있음. 한국은 브라질의 제5위 수입국이며 지속적인 무역흑자를 기록함. 한국의 주요 수출품은 반도체, 자동차 부품, 무선통신기기 부품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철광, 박류, 사료, 펄프, 두류, 가금육류 등임.
 - 브라질에 대한 투자는 누적으로 99억 불(1968-2021)을 기록하고 있으며, 휴대폰, 자동차, 가전, 사료, 중장비 등 제조업 분야에 투자가 집중됨. 현재 약 120여 개사가 진출해 있음.
 - 한국과 남미공동시장(MERCOSUR)은 2018년 5월 무역 협상을 개시하였으며, MERCOSUR 내부의 정치 지형 변화, 코로나19로 인해 협상이 정체되어 있음. 한국은 협상에 적극적이나, 브라질의 소고기 수입에 대한 양보 요구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아르헨티나에 이어 브라질의 좌파 정부 출범으로 협상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